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화제 농어촌 행복대상에 진안군청 정흥기 계장 선정

“농어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2016년 농어촌 행복대상에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정흥기 계장을 선정했다.

농어촌 행복대상은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농업기반조성, 관리, 기술개발, 지역사회발전, 환경보존 등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발굴해 주는 상이다.

지난해 진안군 마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환오 위원장에 이어 올해는 정 계장이 선정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표창과 함께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정흥기 계장은 “큰 상을 준 한국농어촌공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 행복대상은 농업인 지위향상 등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발굴해 주는 상이다.

무진장지사 이안구 지사장은 “농어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는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기종 기자